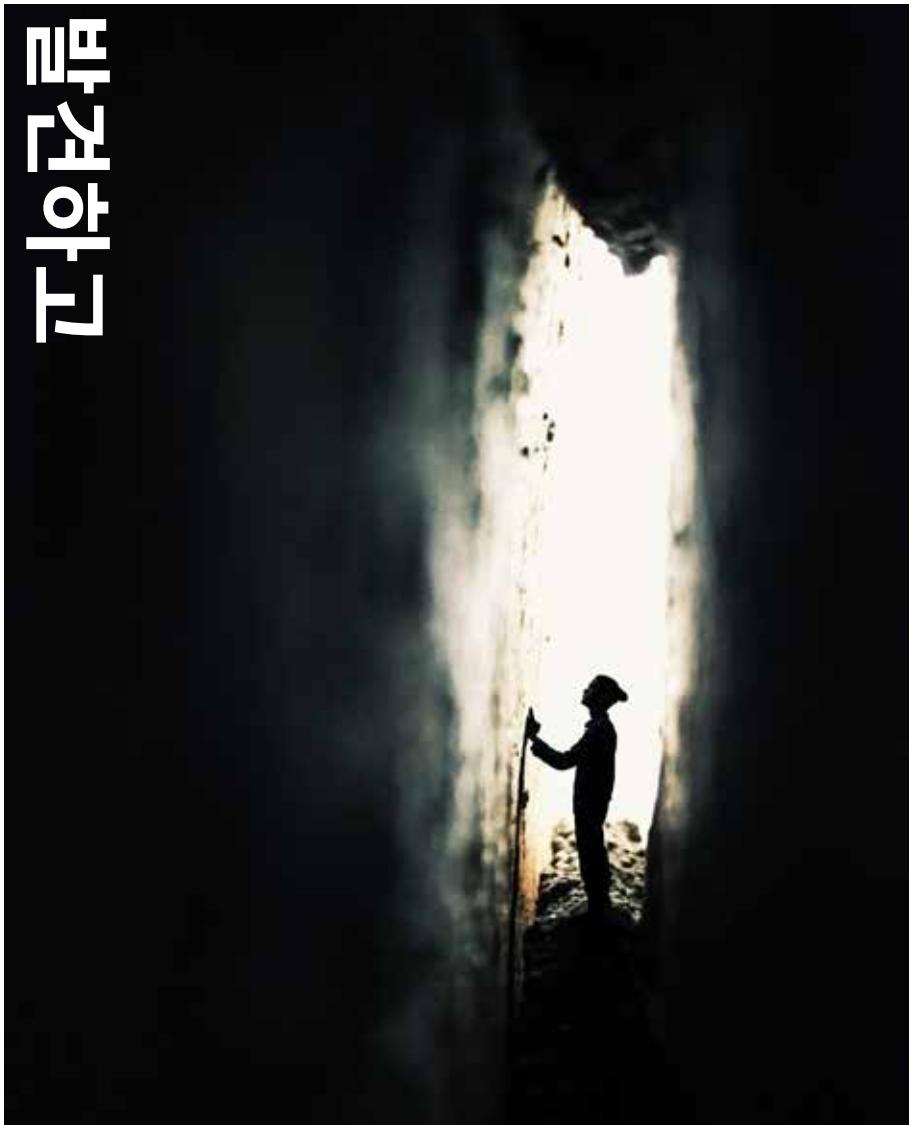


# 나를 발견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글쓰기



함께쓰는 밤 프로젝트: '틈' 생각과 생각사이  
나를 발견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글쓰기

심곡천 네모갤러리  
2021.07.16. - 21.

‘틈’ 생각과 생각사이는 릴레이 방식의 글쓰기 프로젝트로, 같은 소재로도 다른 영감과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며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글쓰기 프로젝트입니다.

‘틈’이란 글쓴이와 글쓴이 사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즉, 나와 내 사진을 보고 작품을 만드는 뒷사람의 생각과 생각사이에 ‘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이전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음 사람이 작품을 만들 때 다음 작가가 이전 작가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태여 ‘틈’을 줄이지 않고 완벽히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봄으로써 타인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작품 활동입니다.

작품 감상의 포인트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차이를 느끼는 데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매개체는 오직 사진이었고, 글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에 공개됐기에 동일한 사진으로 작성된 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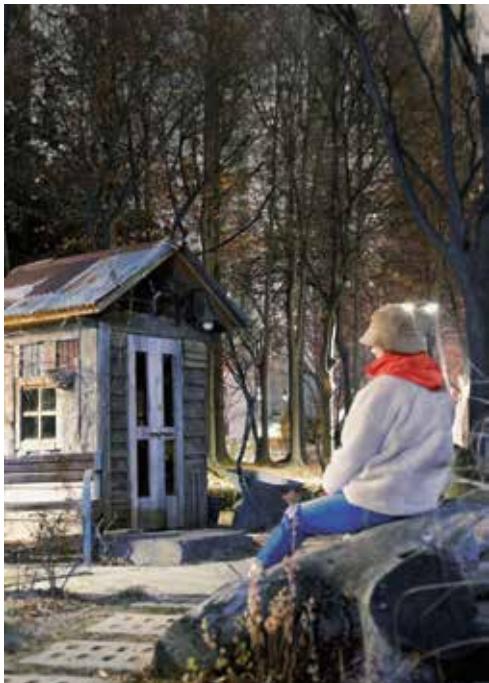
‘함께쓰는 밤’은 부천 독서 모임 ‘동네친구’ 내에서 소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2018년 4회의 테스트 모임 후 지속적인 요청으로 정식 글쓰기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대면 모임에서는 글쓰기보다 모임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의도였습니다. 현재는 온라인만 운영중이며, 온라인 글쓰기에 집중된 것은 코로나 영향입니다.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로 완전히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임의 기본 방향은 글로써 스스로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고, 작성된 글을 나눔으로써 타인과의 차이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감을 고안할 수 있는 사진, 장소, 음악, 영화 등 오브제(object)는 물론 글쓰기 환경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A작가의 사진을 보고  
B 작가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단어



①

#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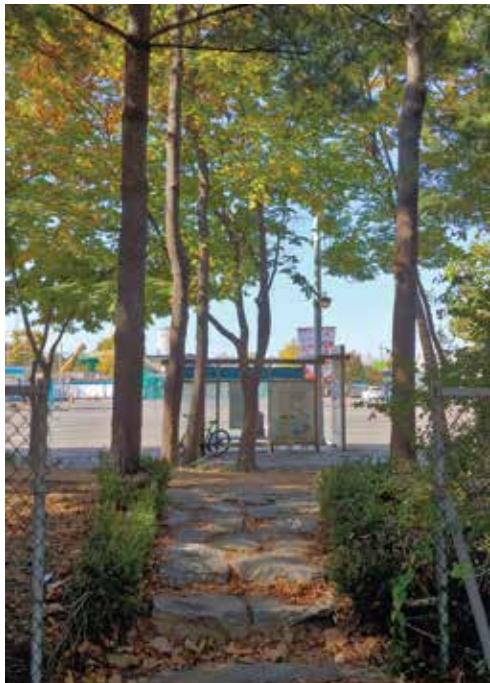
김남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옮겨갈 때 혹은 변화할 때 앞단과 뒷단 사이에는 틈이 존재한다.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순간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 심지어 신호등을 기다리는 잠깐의 순간과 그 찰나 손에 쥔 스마트폰을 만지는 순간에도 있다. 화학적이건 물리적이건 연속적인 변화는 필연적이겠지만, 완벽히 이해 못한 우리에게 그것은 그저 틈이다.

틈은 새로움과 즐거움의 우물이다. 세간에 일컬어지는 생산적인 표현법도 있지만, 딱 떨어지는 말로 표현하자니 무한한 가능성을 구속하는 것 같아 마음이 거부한다. 나는 그것을 무엇에 국한되지 않는, 그리고 목적과 지향성이 없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무엇과 무엇이 맞닿은 상태, 좁히려 좁혀도 반드시 남는 좁은 공간 '틈'

나는 틈을 경계의 움막이라 하기도 한다. 경계와 경계 사이 좁힐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작은 공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움막은 그저 보기에 작고 별것 없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문을 열어보려던 노력도 번번이 실패해왔다. 나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제는 행여 기회가 주어진데도 열어보지 않을 테다.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벤치 위 광합성 하는 고양이와  
골목길 앞 1,000원에 3개 하는 봉어빵을  
포기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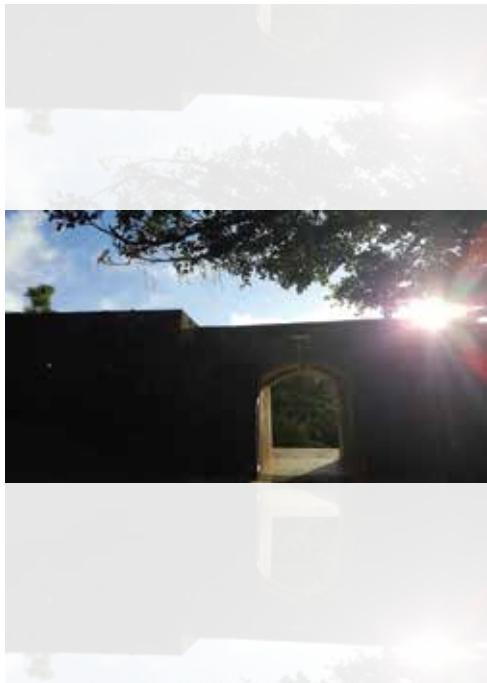
새로운 길에는 이빨을 보이며 짖는 개와  
진흙탕으로 하얀 운동화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 짓는 꽃들과  
새들의 수다스러움을 마주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익숙함을 내려두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②

#길

최광복



너에게로 향하는 모든길이 늘 설레이는 길 일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수 있었을까 싶게 너에게  
눈이 멀어 있었다.  
너와 나 사이에 종이 한장의 틈도 두고 싶지 않다는  
욕심으로  
내 두팔과 두다리로 너를 휘어 감았다.  
그럴수록,  
너를 휘감을수록 틈은 점점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가는 눈을 떠야 겨우 보이던, 실금같던 틈은  
어느새 애써 눈을 돌려 외면해도 그곳에 있다는 걸  
느낄수 있을만큼 벌어져 있었다.  
아차 싶은 마음에 휘감았던 두팔을 내리자 비로소  
니가 보였다.  
내게 짓눌려 찢어지고 패인 너를 보고나서야 난  
너에게서 한발자국 물러설 수 있었다.

③

#설레이

이상미

그저 빈틈없이 너를 안고 싶었을 뿐인데  
안을수록 틈이 깊게 벌어져갔다.  
안을수록 너와 내가 멀어져갔다.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깜깜하다.

이 안에서도 빛을 내려는 것들은 있다.  
발광한다.  
발악하는 건지도.  
마치 삶은 아름다워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둘로 나누었다.  
꿈꾸는 것과 살아남는 것  
그 사이에 거리감 같은 게 생겨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깜깜해서 감도 안 잡힌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걷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발악하는 것이다. 살아남으려고  
혹은 아름다움을 손에 넣으려고  
그러한 마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광해보길  
바라는 것이다.

④

#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

최현수



⑤

#건물

장은비

그것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어둠이었다.  
반짝거리는 것들이 선명해지는 시간.  
누군가의 열정이 빛나는 것 같은 거리.  
침묵으로 일관되던 그 도시는  
어딘가 애잔하고 슬펐다.

저 멀리서 보기만 하던 그 도시를 가까이서  
바라보다가  
타인의 삶의 흔적들이 점점 더 선명해질 무렵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동등한 척하며 동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생의 순간을 1/30이나 절삭하게 되는  
매일의 반복이  
지금보다 나아지길 희망하며  
내가 찬란함의 일부가 될 때까지만  
괜찮아지기를 고대하던 그 삶의 굴레를  
당신과 내가 마주할 때 우리는

희망의 탈을 쓴 절망을 마주하고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옭아매던 것은 무엇이었나.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나하고 서로를 서글프게  
바라보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다르지만 같은 곳의 너와 내가  
같지만 다른 척하는 나와 네가  
선명하지 않은 인생에 선을 그어 아름답다고  
말하기 위하여,  
선명하게 남은 상처조차 치유하지 못한 채, 몸 누일  
한 칸을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하던 죽음이었고, 죽지 못해  
마주하던 잿빛이었다.



⑥

#

## 박진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국가대표> OST를 흥얼거린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를 향해 달린다. 위를 보며 산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 한 발 단계를 밟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 전체,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가 된다. 어떤 기관을 대표하거나 국가대표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하고자 한다. 위로 오르려는 욕망을 불태운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하지 않던가. 누구나 가진 마음이지만 국가대표에겐 욕망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노력,'

극복, 투지, 열망'이란 단어도 잘 어울린다. 그들은 그냥 손을 뻗어선 닿을 수 없는 거대한 곳에 오른 사람들이다. 삶의 목표였을지라도 장엄한 것에 맞서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도전했을까. 손만 뻗치면 가질 수 있는 것엔 만족하지 못했을까. 보통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더 빨리 오르고자 안간힘을 쓴다. 더우기 올라가는 데만 급급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을 배려할 겨를이 없어 서로 차고 채이며 밟고 밟힌다. 그러다가 추락하기도 한다. 결국 모든 건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된다. 떨어져 실패한 충격과 내적 괴로움을 이성으로 달랠기도 한다. 사랑을 나누지만 위로 오르려는 열정이 다시 소용돌이친다. 함께 하던 연인을 무자비하게 밟고 또다시 올라선다. 자신이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란 기대에 인간의 욕망은 시시때때로 차오른다. 욕망을 버리고 정상에 오를 수는 없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정상에 올라야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만나고 헤어지고 헤매다가 짓밟아서 정상에 오른다. 안타깝다. 서로 함께 빛나게 오를 순 없을까. 힘들겠지만 그럴 수 있으리라. 방법이 있으리라.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전체를 대표할 길은 뭘까, 생각해 본다.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의 틈을 좁혀 가는 날들, 그런 날들이, 삶들이 모여 이를 수 있다. 국가대표는 과거와 현재의 틈을 좁힌 사람들이다. 그 틈 속에서 타인과 자신의 생각을 함께 이룬 사람이다. 타인과 함께 꿈과 이상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취는 결국 혼자서 해 낸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이룬 국가대표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각자 삶의 빛나는 국가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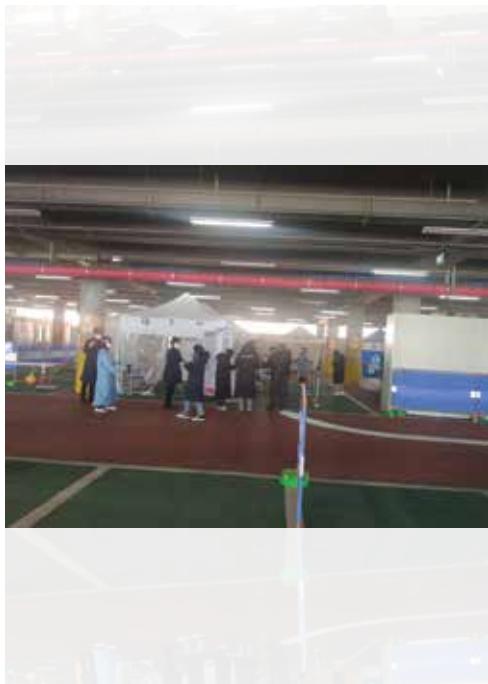
골목길을 걷는다. 좁지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닌다. 차들이 사람 옆으로 위태위태하게 지나간다. 위험하지만 같이 간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는 길은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그 길 위에 선 서로를 보며 비껴간다.

좁은 길을 보며 생각한다. 같이 공생할 수 있고, 위험을 무릅쓰며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것. 지금 시대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⑦

#길

권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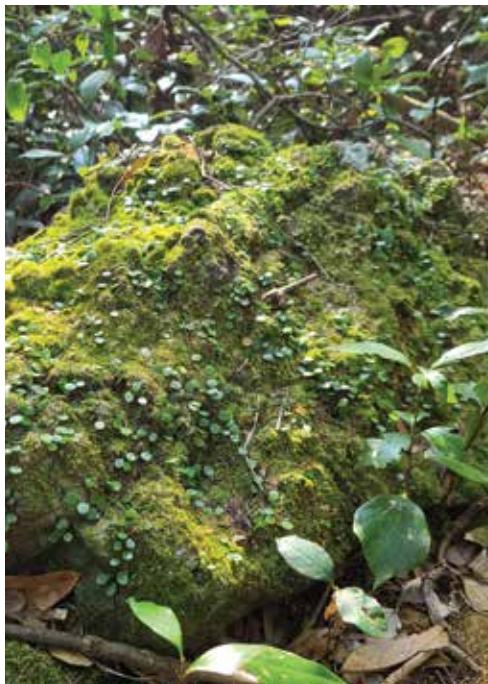


코로나 선별진료 검사소가 지난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코로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다. 어느덧 코로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크게 변했다. 몇몇 직장인 출퇴근을 할 필요 없어졌을 정도가 되거나 원격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전과 다른 근로 형태도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른 듯지만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마스크 벗고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빈다.

⑧

#고립감

문재호



벌건 눈 아래로 축축이 덮여  
얼기설기 얹힌 묵직한 이끼가  
입안으로 점점 파고든다

애써 웃어보려 해봐도  
입꼬리조차 내비칠 수 없다

불안한 복장뼈 아래로 켜켜이 쌓여  
울연하게 굳어진 먼지가  
폐부를 점점 짓누른다

힘써 토해내려 해봐도  
매서운 눈초리만 꽂혀온다

멈춰진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 이끼는 온몸을 덮어  
이내 두 발로 뿌리내렸다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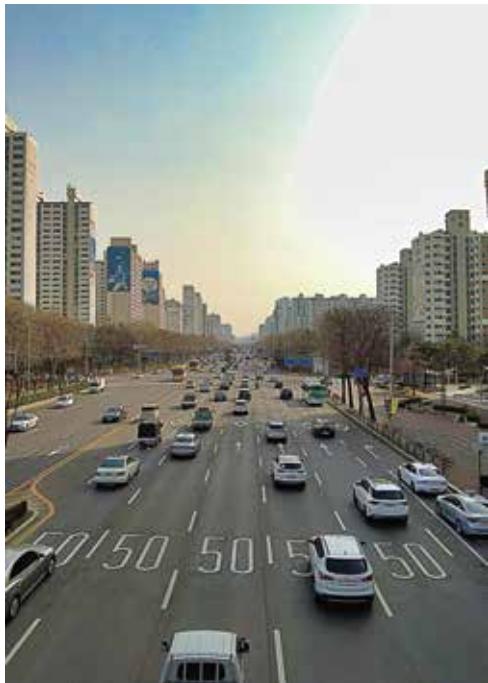
#마스크

김은정

영원할 것 같던 순간  
따갑게 쏟아지는 핫볕  
온몸의 초록빛이 시들었다

손끝에 힘주자 이끼가 바스러지고  
가슴을 두드리자 먼지가 쏟아졌다

갇혀있던 온 숨을 토해내고  
맑은 숨을 들이마시고 싶다.



50킬로 100킬로  
가끔 더 빠르게 달려도 매번 그 자리  
느려도, 빨라도  
딱 속도만큼만 물러났다  
사실은 알았다  
어떻게 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조급함이었을까, 늦기 싫었던 걸까  
아니, 알았잖아 늦고 이를 따위 없는걸  
옆이나 곁눈질했던 거잖아  
조금이라도 앞서야지  
뒤처지지 말아야지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야지

소실점을 골대 삼아 달렸던 건  
사실 지는 게 싫었던 거야  
쥐어야 할 깃발이라도 있는 마냥  
목표 삼아 내달린 건  
욕심이 들통날까 적당히 핑계 삼은 거야



귀로만 들었던 잊혀진 길  
엉성한 철문뒤로 이제는 아는이 없어 찾는이  
없다는 옛길.

그 얇은 틈 너머로 펼쳐진건  
키를 훌쩍 넘긴 수국들이 숨막하게 덮쳐오는  
비밀정원.

흘린듯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니  
여전히 엉성한 철문만 덩그러니 그자리에  
남아있었다.

불쑥, 욕심이 솟아올랐다.

아무도 모르길.

이대로 세상에서 잊혀졌으면.  
이곳도,  
나도.



⑫

#꽃

장은비

유난히도 청량하게 반짝이던 순간을 너는 알까.  
그 많은 동우리 속에서도 너만 보이던 순간을 알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오롯이 너만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 그건 정말, 신기하고 진귀한 경험  
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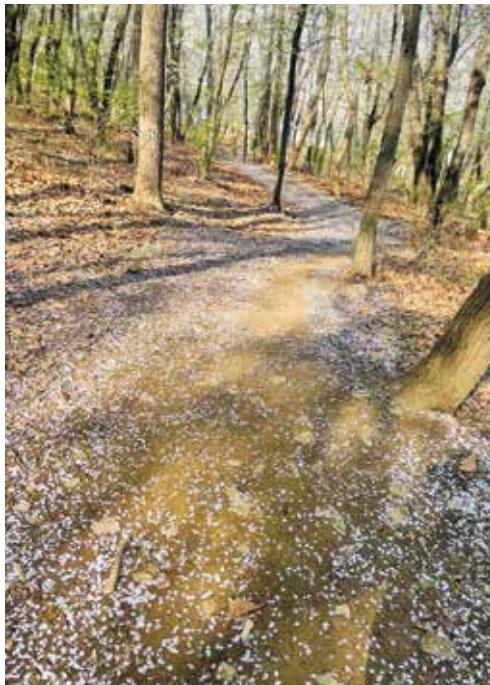
시간이 지나  
계절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어느새 너는  
어디서든 반짝이는 너만의 색을 내고 있었고  
해맑게 웃으며 주변마저 환하게 만들었어.  
누가 봐도 그저 사랑스럽고 예쁠 수밖에.  
그게 설령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이는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지금의 나는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으로도 충분해.  
은은히 찾아오는 너의 향기도 좋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너도 좋아.  
가끔 넘어져 울고 있는 너도 예쁘고,  
막막해하며 인생을 고민하는 너도 아름답단다.

그러니,  
지금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너의 가치는 네가 결정하는  
거잖아.  
너는 이미 너의 예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미래의 나는  
현재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지금의 네가  
만든 거야.  
인생은 원래 곡선이래.  
재미있는 게 더 많게 살자. 두려울 거 뭐 있어.  
  
힘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지금'이야.



어디로 떨어질지 모를 꽃잎들이 촉촉이 젖은 흙길 위로 내려앉는다. 하나, 둘 떨어져 앉은 꽃잎들은 흙길을 꽃길로 바꿔준다. 꽃길인 줄 알고 한 발 내딛자 젖은 흙길은 내 발에 흔적을 남기며 자신의 일부를 나눠준다. 나는 놀란 마음 진정하며 한 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다.

⑯

#꽃길

권대안



벚꽃이 질 무렵

새해가 되고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벚꽃을 기다린다.  
봄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미묘한 설렘을 가져오기 때문일까.

만개한 벚꽃도 잠시.

비가 내리고나면 산들산들한 바람에도  
벚꽃잎들이 훌날려 우수수 떨어진다.

이 짧은 순간의 화사함보다

겨울의 문턱에서 누렇게 말라 떨어질 때까지  
푸르른 나뭇잎이 좋다.

앙상했던 가지에 뭉텅뭉텅 달린 벚꽃보다  
푸릇푸릇 자리를 메꿔가는 나뭇잎이 좋다.

그렇게 천천히 초록빛으로 채워져  
싱그러운 숨결이 되는 나뭇잎이 좋다.



간지럽히는 봄바람, 활짝 웃은 너  
바라보는 내 마음도 피어오르네

너의 관심사, 네가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  
너의 미소 너의 웃음소리  
나를 웃게 만드네

어디로 갈래?  
네가 있는 곳 어디든 환하게 비추어줄게  
너의 미소 너의 웃음소리  
나를 웃게 만드네



⑯

#스포트라이트  
최현수

어디에든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들꽃을 찍었다.

확대해보고서야 안에 벌레가 보인다.

다행이다, 벌레라도 있어서.

그냥 꽃 사진이 될 뻔했다.

그게 뭐 어때서?

주목받기에는 크게 아름답지 않은 꽃이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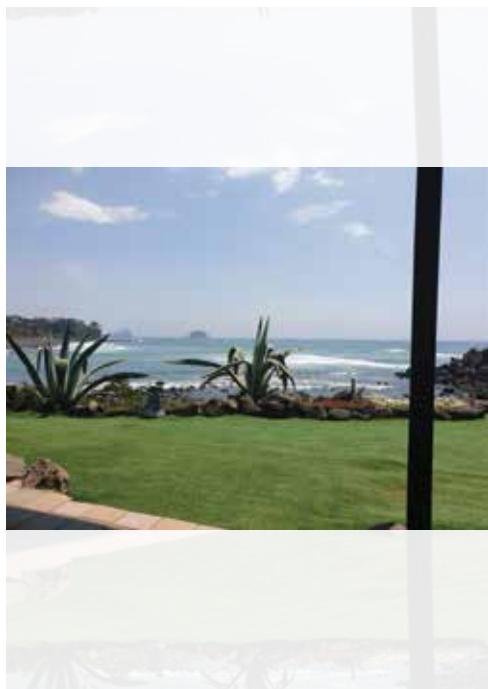
꽃 사이를 등반하고 있는 저 벌레를 맨눈으로  
보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까, 아니면 가늘게  
뜨고 봐야 할까.

함께 시답잖은 꽃 사진을 보러 가는데도 흔쾌히  
동행해줄 사람을 찾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할까, 아니면 가늘게 뜨고 찾아야 할까.

내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면 당연한 듯  
옆에서 같이 바람을 맞아주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 이 꽃에 벌레가 없었어도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어디에든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다시 한 번, 이 사진을 보고 있다.



멈추어 바다를 바라본다

하얀 파도가 손짓하고  
멀리 뿐연 섬이 궁금하다

올려다 본 하늘엔 구름이  
연기처럼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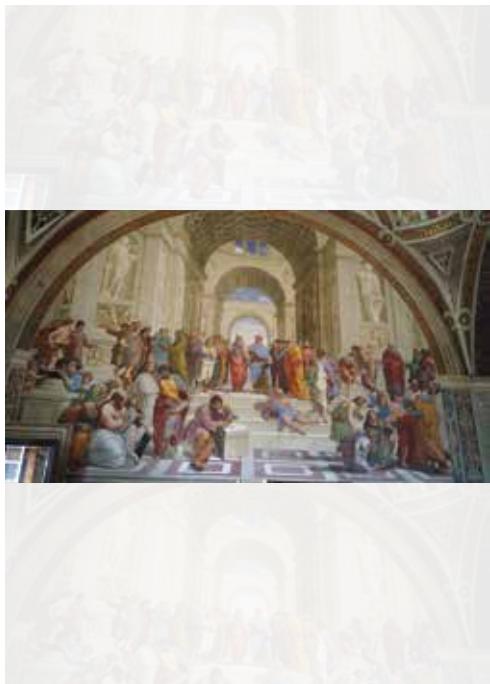
후후, 숨을 고른다.

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누인다

눈을 감은 듯  
고요한 공기가 흐른다

햇살이 내리쬐어도  
파도소리가 나도,

흔들의자에 앉은 듯  
편안하다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산치오가 교황 명령으로 1509~1510년 동안 그린 작품. 철학을 상징하는 프레스코화로 고대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 상상화다. 영원의 이데아를 중요한 중앙 윤편 플라톤과 현실을 중시해 땅을 가리키는 중앙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유럽에 다시 가고 싶어서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 시간을 되새겨본다.

⑯

#평화로움

문재호

# 함께쓰는 밤 글쓰기 철학

## 나를 발견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글쓰기 '함께쓰는 밤'

### '스스로를 안다'는 것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스스로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걸까요. 내 몸 세포 하나하나의 화학적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자신을 이해하는 건 어쩌면 세상을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스스로를 발견'하다

'함께쓰는 밤'은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고유한 자신을 아는 건 어려우니까. 보편적인 자신을 알아가자는 말입니다. 발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글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자신과 상대적 자신의 비교입니다.

### '절대적 자신'이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해서 자로 짤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성향은 이 정도겠구나'라며 생각하는 모습이죠.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아직은 절대적 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유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절대적/상대적'이라는 단어의 운율이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 '상대적 자신'이란

상대와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높낮이는 좋고 나쁨을 말하진 않습니다. 비교를 상상 속에서 가시화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 '비교'

글쓰기를 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무척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엔 '사람 생각이 거기서 거기네'라고 하지만 막상 세세히 끄집어내어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공통된 오브제로부터 작성된 나의 글과 다른 이의 글을 볼

때. 자신이 작성한 글은 완전히 자신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향받는 성향조차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이의 글을 읽어봅니다. 같은 주제를 줬음에도, 혹은 비슷한 글을 썼음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차이로부터 다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적 차이란 나와 남과의 다른을 이해하는 것이죠.

절대적/상대적 비교란 동일한 오브제를 주제로 작성된 글을 비교함으로써 나와 남의 차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 '글쓰기의 연속'

사람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같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공간, 주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죠. 심지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조차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선택 들일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노래, 장소와 같이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글쓰기로 제시되는 오브제들로부터 오는 고뇌는 자기 자신을 세세하게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자책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시점엔 낱낱이 분해된 알갱이들이 주섬주섬 담긴 결과물을 목격하게 되죠.

분해된 알갱이들은 언뜻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아 보면 분명 커다란 범위에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상대적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글쓰기는 겨우 한 알갱이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원 한 명의 신분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면 꾸준히 써야 합니다.

###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함께쓰는 밤

전체 브랜드 네임은 '나를 발견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글쓰기 함께쓰는 밤'이지만 해독의 난해함을 줄이고, 외우기 기억이 용이하도록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함께쓰는 밤'으로 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함께쓰는 밤 프로젝트: ‘틈’생각과 생각사이  
나를 발견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글쓰기



온라인 전시장



Copyright 2021. 함께쓰는 밤. All rights reserved.